

한계 온 힐링, 이젠 Up-Grade 필요하다

[프롤로그] 왜 'Post-Healing'를 말하는가

2010년 전후 불어온 힐링 열풍
불교, 사회 힐링 트렌드 주도해
7년 지난 지금, 힐링 침잠 상태

열풍에 비해 불교적 성과 '미비'
"사사화 · 탈종교 가속했다" 지적도
자기계발 비판 넘은 대안 필요해
근본 집중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힐링(Healing)은 한국사회에는 매우 친숙한 단어다. 일반적으로 치유를 말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힐링이 사회 전면에 나타난 것은 2010년 전후이다. 당시 '힐링 열풍'이라는 수식으로 불릴 정도로 센세이션한 반응을 가져왔고, 이를 주도했던 곳이 바로 불교다. 법륜 · 혜민 · 정목 스님 등 국민 멘토들의 저서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강연에는 2030세대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데칼코마니' 자기계발과 힐링

하지만,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야기가 다소 달라진다. 소위 힐링 담론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비판의 골자는 '위로는 위로일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위로를 통해 생활을 지속하는 도움을 주지만 사회 문제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희망고문'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저에는 이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룬 자기계발 담론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자기계발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등을 말하는 일종의 성공학이다. 한국의 출판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분야가 자기계발의 분야이다. 피트니스, 다이어트, 요가 등 신체관리 지침서부터 시간관리, 글쓰기, 인간관계 매뉴얼과 청소년 교양 서적, 적지 않은 종교적 에세이도 넓게는 자기계발 담론의 자장 안에 속한다.

이를 두고 서동진 계원예술대 교수는 저서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를 통해 "(성공학, 처세술을 비판하는 사람도)자기계발이란 용어를 경유하지 않은 채 '나의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성찰하게 한' 등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계발 담론을 열정적으로 소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숙진은 〈종교문화비평〉25호에 게재한 '자기계발이란 이름의 종교'에서 "자기계발은 대중문화의 옷을 빌린 하나의 세속 종교"라면서 "자기계발 열풍은 자유와 성공, 힐링과 행복이라는 메시지로 신자유주의 논리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의 힐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 고찰해 한양대서 석사학위를 받은 장민우도 "현대 한국사회의 힐링 담론은 무한경쟁의 압박으로부터 치유를 향한 욕구로 의해 생겨난 듯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문제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기계발 담론이 내세우는 핵심 요지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한국사회에 불었던 힐링 열풍은 자기계발 담론의 또 다른 변주곡이었고, 그 영향권 안에 불교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힐링 이후 남은 것들

2000년 이후 힐링과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사회에 유행됐고, 불교가 이를 주도하며 여론을 이끌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통해 명상은 대중화되고, 템플스테이라는 관광문화콘텐츠가 개발돼 인기를 끌고 있다. 힐링 문화가 스님과 사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주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단적 포교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국민 가운데 10대 이하(356만3208명)는 개신교가 60.1%로 가장 높았으며 불교 20.7%, 가톨릭 17.9%였다. 20대(209만3394명)는 개신교 50.2%, 불교 27.3%, 가톨릭 20.9%였고, 30대(281만9434명)는 개신교 48.3%, 불교 30.2%, 가톨릭 20.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1984~2014〉에서도 10~30대 불교 인구는 크게 반등되지 못했다. 도리어 2004~2014년 동안 30대 불자 인구 분포는 21%에서 11%로 줄었다.

종교 지형도 변화했다. 〈한국인의 종교〉에 따르면 종교 생활에 필수인 법회 · 예배 참여와 같은 외적 종교성은 줄었으나, 단순 경험과 같은 내적 종교성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의 20%로는 '기 · 마음 수련'과 같은 유사종교 체험을 경험했고, '종교보다 개인적 성찰과 수련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35%로 달한다.

이에 대해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한국인들의 신앙이 제도 종교 중심의 신앙 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경향이나 종교적 얽매임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사실, 명상의 대중화와 유사종교 범람은 종교의 사사화에 따른 탈종교화 현상의 요인 중 하나다. 웰빙 · 힐링 등 트렌드들이 불교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교단적 포교에는 그 영향이 미비한 것도 대중들이 개인적 체험으로만 불교적 힐링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기존 힐링 문화를 넘어서

현재까지 불교계에서 힐링 콘텐츠를 불교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힐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힐링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치유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 불교계가 '포스트 힐링(Post-Healing, 힐링 넘어서기)'을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화엄탑사구미불교대학 주지 명법 스님은 "굉장히 많은 유형의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는 데 그것을 매우 단순화해 해결책을 내어 주려고 한다"면서 "내용 역시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오로지 위로받고 '괜찮아'로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불자와 일반 대중이 상생할 수 있는 힐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지금은 초기의 힘을 잃고 있다"면서 "힐링 관련 서적 및 콘텐츠는 자기계발서에 머물러 있거나 주관적 경험과 주장에 경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와 뒷받침이 되는 과학적 이론이 필요하다.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가진 콘텐츠가 주축이 돼 이끌어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계, 산업계, 의료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되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한 연구에서 불교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원효종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불기 2561(2017)년 12월 6일
대한불교 원효종 14대 중앙종회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종회의장 운오
종회부의장 법원. 정운

총무원장 법광 우석
규정원장 성암
법규원장 경오
고시원장 효산

대한불교 원효종에서 2018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종도스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62(2018)년 1월 9일 10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 (경주시 충현로 3길 4-1)
● 전 화 : 054) 743-0700 FAX : 054) 741-9002

대한불교 원효종 종단 소속 사단법인
(사)한국불교염불선종
(사)평해재단 평해사
(사)대한선불교 원효종

신년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삶의 현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즉 생활속의 불교이지요.
도대체 생활속을 떠나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시에서의 생활, 산속에서의 생활, 인간으로 나서 사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불성과 같이 하는 자신을 주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도 불성이 있기에 우리는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참나를 찾기위해 물러남이 없는 정진을 해 나갑시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총무원장 법광 우석 선거관리위원장 석불